

열린마당

국립중앙도서관의 메인 로비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 한국의 고전문학을 재발견하고, 작가를 만날 수 있는 체험공간입니다.

국가대표도서관을 상징하는 '지식의 물결' 책 모형과 열린 공간 전반을 미디어 캔버스로 활용한 체험관에서 도서관 실감형 콘텐츠를 더 가까이 체험해 보세요.

K-문학의 재발견

한국적인 선, 색채와 문양을 현대적인 디지털 미디어 기술과 결합한 콘텐츠로 한국 고전문학을 현대적인 감각의 일러스트로 재해석한 미디어아트입니다.



작가와의 만남

작가의 작품을 통해 작가와 대화를 나누고,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인터랙티브 콘텐츠입니다.



관람시간 09:30~18:00

전시장소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1층 열린마당

- 이용안내**
- '열린마당' 실감체험관은 사전 예약 후 이용 가능합니다.
 - 상영 시간 및 운영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도서관 누리집을 참조하세요.
 - *K-문학의 재발견의 상영모드(show mode): 일 2회 운영(10:30, 15:30)
 - 공간 내 소지품 반입이 불가하며 만 16세 미만 관람자는 보호자를 동반하여 입장 가능합니다.
 - 콘텐츠 상영 시간 내 체험관 내부는 어두우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은 가능하나, 삼각대, 플래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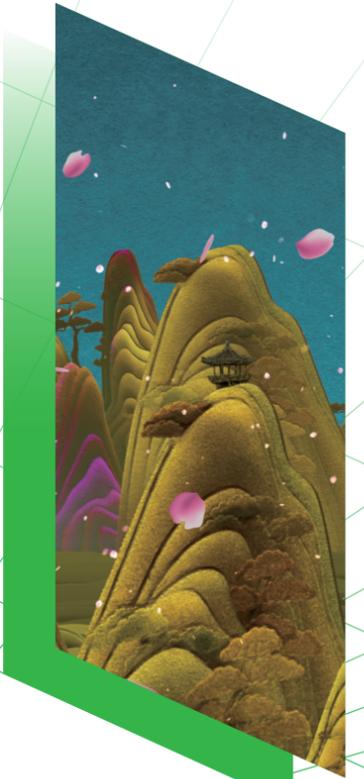
상영정보 및 예약 페이지 자세히 보기

관람예약 누리집(www.nl.go.kr) → 도서관 이용 → 전시 → 열린마당

휴관일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공공서의 공휴일

문의 02-3456-6169

열린마당



국립중앙도서관 실감체험관
실감나는 콘텐츠
체험하는 도서관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관동별곡'은 송강 정철(1536~1593)이 강원도 관찰사로 임명된 해(1580년) 금강산과 관동팔경의 산수와 풍경, 유적과 풍속 등에 대한 감회를 활달하고 호방하게 노래한 국·한문 혼용 유람 기행가사입니다. 'K-문학의 재발견-관동별곡'은 원작에 기술된 주요 장소를 소재로 작가의 심경과 소회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환상적인 요소를 더해 표현한 실감 콘텐츠입니다. 작가의 여정을 8개 장면으로 구현하였으며, 대기모드(idle mode)와 상영모드(show mode)로 운영됩니다.(약 11분)

서사

인트로



수장고에 보존된 '관동별곡'을 거대한 동판에 새김. 천장엔 단청이 나타나고, 기둥에 청사초롱이 켜지며 영상 시작

경복궁

1



한양의 경복궁을 배경으로 정철이 관찰사에 임명된 후 떠나는 심정 표현. 경복궁 주변 산과 강이 나타남

본사

섬강과 치악산

2



섬강의 거센 물줄기와 치악산의 산세(山勢) 등을 표현

만폭동 폭포

3



만월(滿月)이 녹아내린 만폭동 폭포라는 가상의 설정과 폭포 옆 무지개로 신비한 절경 그려냄

금강산 봉우리

4



사계절에 따라 생동감 있게 변화하는 금강산 봉우리의 산세(山勢)를 표현

비로봉, 금강산 전경

5



금강산 최고봉인 비로봉 전경의 모습을 현대적 산수화로 표현

총석정

6



일출의 변화에 따라 수정처럼 빛나는 총석정의 모습을 신비롭게 형상화

망양정

7



망양정 안에서 본 동해의 월출을 작가의 시점으로 나타냄

결사

밤하늘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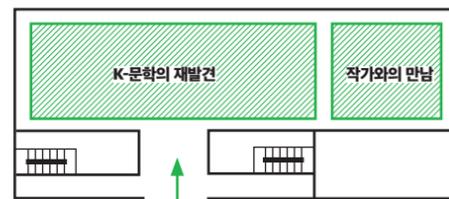
달이 있는 밤하늘 풍경과 은하수, 별들의 움직임 묘사

* 음악감독: 류경화(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

송강 정철의 여정 한 눈에 보기



- 유람경로
 - 관동팔경
 - () 옛지명
 - 콘텐츠 배경으로 나타난 지명
- 1 한양(서울) → 평구역(양주) → 흑수(여주)
 - 2 섬강·치악(원주) → 소양강(춘천) → 동주(철원) → 회양(강원도 동북쪽)
 - 3 4 5 금강산 → 6 총석정(통천) → 삼일포(고성) → 청간정(간성) → 낙산사(양양) → 경포대(강릉) → 죽서루(삼척) → 7 망양정(울진)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1층 열린마당

이상과의 대화

이상이 관람객에게 대화를 건네는 콘셉트의 인터랙티브 콘텐츠로 작가의 작품 세계를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미디어인 '보고/읽는 디지털북'과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보는 디지털북'에서는 작가 이상이 소개하는 작품의 원문과 영상 속 텍스트 아트에 담긴 작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메인영상(약 9분)과 프롤로그 영상(20분, 이상의 작품 소개 등)이 번갈아 상영됩니다.



'읽는 디지털북'에서는 이상의 대사에 맞추어 관련된 작품과 관련 정보를 보여주거나(메인영상) 터치 인터랙션을 통해 영상에 나타난 이상의 작품 원문과 번역문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습니다.(프롤로그 영상)

'보는 디지털북'은 1930년대 이상이 주로 생활했던 공간인 제비다방, 건축기사실, 화실, 경성거리 순으로 배경이 전환되면서 각 공간과 연관된 작가의 삶과 인물(구본웅 등 구인회 문인, 금홍)을 소개합니다. 이상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음악, 미술,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융복합적인 사고를 했던 예술가로서의 열의와 면모를 엿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과 꿈, 인생관 등을 통해 개인적인 삶을 이해할 수 있으며, 작가로서의 철학이 담긴 작품 세계도 생생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상과의 추억

관람을 마친 후 이상이 활동했던 공간을 배경으로 작가와 함께 '인생네컷' 사진을 촬영하며 추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작가 소개

이상(李箱, 1910~1937)



본명 김해경. 화가가 되고 싶었으나 집안 형편상 경성고등학교 건축과(현 서울대학교)에 진학하여 수석으로 졸업. 조선총독부 내무국 건축과 기술(技手)로 근무. 1930년 '십이월십이일(十二月十二日)'을 이상(李箱)이라는 필명으로 연재. 1931년 조선미술전람회에 '자상(自像)' 입선 후 폐결핵 진단받은 조선총독부를 그만둔 후 1933년 <카톨릭청년>에 시를 발표하며 본격적 작품 활동 시작. 같은 해 황해도 요양 중 기생 금홍 만남. 서울 종로1가에 다방 '제비' 개업. 이후 시인 정지용 등과 '구인회' 일원으로 활동. 화가 구본웅의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근무하면서 1936년 변동림과 결혼. 김기림의 시집 '기상도(氣象圖)' 표지 장정 편집 등 활동하며 대표작 '날개', 발표 새로운 모색을 위해 도쿄로 건너갔으나 1937년 사상범으로 몰려 한 달간 유치장에 수감된 후 병세 악화로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남.